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7월 24(금) 13:00 이후

담당 : 공공사업본부 양성규 과장
(051-990-7133)

부산상의, HJ중공업과 함께 사내협력사를 위한 중복 맞이「상생 커피트럭」운영

커피트럭 4대 동원하여 2,800여명 조선업 근로자의 더위 해소

▶ **고용노동부 · 부산시가 지원하는「부산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의 일환**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7월 24일(금),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부산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HJ중공업과 협력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복 맞이「상생 커피트럭」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초복에 진행한 상생수박 나눔에 이어 중복에 맞춰 마련된 두 번째 혹서기 현장 프로그램이다. HJ중공업 구내식당 앞에 커피트럭 4대를 배치하여 원청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중식시간에 시원한 커피를 함께 나누면서 무더위를 이겨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상생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조선업은 옥외작업과 고온 공정, 장시간 육체노동이 많은 특성상 여름철 현장 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이 큰 업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상생복데이는 이러한 작업환경을 고려해 복날이라는 특정 시점에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고, 혹서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행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직원은 드라마에서 보던 커피트럭을 현장에서 이용하게 되니 대접 받는 기분이 들어 무더위가 날아가는 느낌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커피트럭 운영은 HJ중공업과 협력사가 상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폭염 대비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상생 분위기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생복데이의 핵심은 커피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휴게·소통의 경험을 만드는 데 있다” 면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현장에 꾸준히 축적될 때 원청과 협력사 간 복지 및 근무여건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부산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현장 체감형 상생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상생형 격차 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1. 행사개요 1부.

〈올인원복지 특화복지〉「상생복데이」 2차 추진계획(안)

❖ 본 사업은 「**올인원복지 특화복지**」의 첫 사업연도 실행과제로서, **혹서기 현장 근로자에게 휴식·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보호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특히 **원청을 협력사와 함께 현장을 만들고 참여하는 공동 상생주체**로 **설정**하여, 원청과 협력사 구성원이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 마련**

❖ **이번 지원은** 일회성 제공에 그치지 않고, 원청의 협조와 협력사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 휴게·소통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

- 향후에는 현장 참여 경험과 근로자 의견을 토대로 **원청별 자율적 상생활동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원·하청 간 복지·소통 여건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개요

○ 사 업 명: 올인원복지 특화복지 「상생복데이」 2차 추진

○ 일　　시: 중복 맞이 「상생 커피트럭」 운영

○ 장　　소: (중복) 2026. 7. 24.(금) 11:30~13:00, HJ중공업 구내식당 앞

○ 참여대상: HJ중공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등 2,800여명

※ 원청·협력사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참여형 행사로 원청사 및 현장 관계자는 행사 공동 상생참여 주체로 참여

○ 주요내용: 중복 계기 커피트럭 운영